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가사노동자와 현대 도시의 불안정 노동

박준영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박사과정)

2015년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에는 약 400만 명의 가사노동자가 있다. 이들은 주로 고용 수요가 높은 도시 지역에서 노동하며 대부분 농촌 지역 출신이다. 인도네시아의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는 가사 노동 외주화의 수요와 공급을 만들어냈다. 도시 지역의 많은 사회, 경제적 기회는 도시 가정의 경제적 상황의 개선을 가져왔지만, 가정 내 돌봄의 공백이 발생했다. 이 공백은 유급 가사 노동으로 채워졌다. 유급 가사 노동의 공급은 농촌 출신 여성 이주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인도네시아는 도농 간의 격차가 크고 이는 주요 사회적 문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지역별 격차는 도시 지역에서 유급 가사 노동을 유지하는 배경이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가사노동자는 대표적인 비공식, 불안정 노동자이다. 이들의 비공식적이고 불안정한 상황이 유지되는 배경은 농촌 출신 이주자들이 이 역할을 떠맡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현대 도시에서 불평등한 가사노동 고용 관계는 가사노동자의 열악한 이주와 정착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가사노동자 권리보장운동이 출현했다. 이 운동은 가사노동자의 공식화를 통한 불안정성 해소를 목표로 한다. 권리보장운동은 2000년대 중반부터 주요 지역에서 가사노동자 관련 사건과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으로 시작하여 현재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이 네트워크는 2004년 인도네시아 국회에 제출한 가사노동자 권리보장법안의 제정을 위한 활동을 중심으로 조직됐다. 그러나 권리보장운동이 출현, 활동한지 약 20년이 지난 현재 권리보장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주요 원인은 가사노동자의 권리 보장은 자카르타 도시 경제에 부작용을 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그림 1] 인도네시아 가사노동자 권리보장운동 집회

인도네시아의 수도이자 대표 도시인 자카르타의 가사노동자 고용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2024년 1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현지 조사를 진행했다. 이 현지 조사는 ‘아시아연구소의 현지조사 지원 사업’의 지원으로 다녀왔다. 현지 조사에서는 먼저 이 돌봄 관계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가사노동자와 고용인을 인터뷰했다. 가사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는 가사노동자의 이주, 노동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대부분 농촌 출신 이주자였으며 더 나은 사회, 경제적 기회를 찾아 도시로 이주했다. 대부분의 가사노동자들은 먼저 이주한 가족이나 친구, 이웃 등의 소개를 통해 도시로 이주하여 가사노동자로 취직한다. 이들은 대부분 초등학교 졸업 혹은 중학교 졸업의 학력을 갖고 있으며 평균 10대 중후반의 나이에 이주하여 노동을 시작했다. 이주 초기에는 입주 가사노동자로 일하다가 도시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하면 개인이나 가족이 거주할 공간을 마련하여 출퇴근 형식으로 노동한다. 인터뷰한 가사노동자 중 일부는 외국인 가정에서 노동한 경험이 있었다. 외국인 이주자의 증가로 자카르타가 국제 도시가 되며 외국인 가정에 고용되는 가사노동자가 증가한다고 했다. 가사노동자들은 외국인 가정에 고용되길 희망했으며, 이는 외국인 가정에서 노동 권리가 더 많이 보장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국가의 가정은 기피 대상이었는데, 인도와 한국 가정 등은 업무량이 많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는다고 알려져 있어 기피한다.



[그림 2] 인도네시아 가사노동자 단체 인터뷰

현지조사에서 인터뷰한 대부분의 가사노동자는 현재 상황에 큰 불만은 없었으며 고용인과의 갈등도 심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나 직업을 변경할 기회가 있다면 변경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모두 변경하겠다고 답했다. 이를 통해 가사노동자라는 직업이 힘들지만, 자신이 처한 조건에서 현실적으로 가질 수 있는 직업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이해했다. 현지조사에서 만난 가사노동자 중 일부는 권리보장운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권리보장운동에 참여하는 이유는 이

활동을 통해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동료들을 만나 교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교류를 통해 직업 기술과 갈등 대처 방안 등을 공유한다. 물론 권리보장운동의 대의에는 동의하지만, 이보다는 동료들을 만나 교류할 수 있다는 점이 권리보장운동 참여의 더 주요한 이유였다.

다음으로 현지조사 기간에 가사노동자 고용인을 인터뷰했다. 총 11명의 고용인을 인터뷰했으며, 이들의 상황과 고용 원인은 매우 다양했다. 대부분은 경제적 여유가 있어 가사노동자를 고용했으며, 일부 가정은 간병, 육아 등 돌봄 노동이 필요하여 가사노동자를 고용한다. 또한 한 명 이상의 가사노동자를 고용하는 가정도 있으며, 입주, 출퇴근 형태의 가사노동자를 필요에 따라 고용하고 있었다. 고용인은 결혼하지 않은 20대 초반 연령의 여성 가사노동자 고용을 선호했다. 가사노동자가 너무 어리거나 나이가 많을 경우 가사 노동을 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결혼했을 경우 가족의 일로 인해 결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고용인은 가사노동자와의 갈등이나 고용 관계에서 문제점은 없다고 답했지만, 가사노동자로 인한 도난 사고에 대한 경험이 보편적으로 있었다. 그러나 도난 사고를 갈등이나 문제점으로 인식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도난 사고는 가사노동자를 고용 상황에서 감수해야 할 일로 받아들이거나 피해 규모가 경미하여 큰 문제 상황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용인 인터뷰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고용인이 가사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식하기보다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한다는 점이었다. 고용인들은 사적 공간인 집에서 노동하는 가사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식하는 것을 비인격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가사노동자는 고용인의 가정에서 실제 가족 구성원과는 분명히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 예를 들어, 집 안의 다른 공간보다 작고 열악한 시설의 방(주로 부엌과 연결된 방)에서 생활하고 집 안의 안방 등 매우 사적인 공간에는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었고 거실의 소파에도 앉지 못한다. 즉, 고용인의 입장에서 가사노동자는 실제 가족 구성원으로 여겨진다고보다 그들의 처지에 연민을 느끼고 사적 공간의 일부를 나눠 쓰고 같은 음식을 먹으며 인격적인 대우를 하는 가사노동자를 ‘가족 구성원’이라 표현했다. 또한 고용인들은 가사노동자를 폭행하거나 임금체불 등 경제적인 피해에 대해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 인식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고용인은 가사노동자의 처지에 연민을 느끼고 ‘가족 구성원’이라 주장했지만, 이들을 법적, 제도적으로 공식화하여 권리를 보장하는 데에는 반대했다. 이에 대해 고용인들은 가사노동자들이 제도적인 보호책 없이도 고용인의 양심에 따라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가사노동자 고용 관계에 매우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중개업체를 인터뷰했다. 중개업체는 자카르타 등 도시 지역에서 가사노동자와 고용인을 중개한다. 중개 업체는 농촌 지역에서 가사노동자로 고용되길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일정 기간(약 2주) 직업 훈련을 시킨 다음 조건에 맞는 고용인의 가정에 중개한다. 중개 업체는 한 달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개료(소개비)로 받는다. 이 비용에는 가사노동자의 이주와 훈련 비용이 포함되어있다. 과거에는 고용인이 개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가사노동자를 직접 고용했지만, 최근 중개 업체를 통한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도시로 이주한 잠재적 고용인들이 점차 농촌 지역과의 연결이 약화되고 고용인들이 점차 전문적이고 신원이 보증되는 가사노동자의 고용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중개 업체는 고용인에게 가사노동자의 신원 보증과 사고 예방 및 사고 이후 대응을 책임지지만, 가사노동자가 고용인으로부터 받는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역할도 한다.



[그림 3] 가사노동자 중개업체 방문과 인터뷰

이상으로 가사노동자 고용 관계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있는 당사자들을 인터뷰하고 관련 활동가와 연구자 등 전문가를 인터뷰했다. 이에 더해 현지 조사에서는 가사노동자가 대부분 여성이며 비공식, 불안정 노동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여성 인권, 노동 전문가를 인터뷰하고, 인도네시아 도시 지역의 주요 문화인 자바 전통 문화와 이슬람 문화 전문가를 인터뷰했다. 이 인터뷰 결과 가사노동자는 인도네시아 도시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취약한 여성과 노동자 권리에 서도 가장 주변화된 존재였다. 심지어 여성 인권 단체와 노동 조합 등으로부터 가사노동자의 문제는 주요 문제로 인식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해 가사노동자 권리보장운동 활동가들은 가사노동자들은 ‘이중 차별’을 받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처럼 가사노동자에 대한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사회적 인식은 봉건적이고 가부장적인 자바 전통 문화와 이슬람 문화에 영향을 받는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현지 조사에서 파악한 인도네시아 현대 도시의 가사노동자 고용 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인도네시아 현대 도시의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외주화된 가사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발생했고 가사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은 가사노동자의 취약한 권리보장의 현실 위에서 이루어졌다. 인도네시아 현대 도시의 경제는 가사노동자의 불안정성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의 경제, 정치 문화는 이러한 현실을 방치하는 가운데 불안정 노동에 고용될 희망하는 농촌 출신 이주 노동자는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다. 이들의 노동은 인도네시아 현대 도시에서 가정의 필수 돌봄 노동을 책임지고 있다. 현지 조사에서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연구에서는 인도네시아 현대 사회에서 민주주의와 여성, 노동 인권 의식이 발전하는 한편 신자유주의 도시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가사노동자 고용 관계의 의미와 이 관계의 변화를 전망하는 분석을 시도한다.